

미 대학가 졸업식에서도 '반전 시위'

친이스라엘 연사에 집단 퇴장 뉴욕 컬럼비아대 등 졸업식 취소 AP "대체로는 평화롭게 진행"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잇따랐던 미국 대학가에서는 졸업식에서도 시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2일(현지 시간) 오전 열린 동부 듀크대 졸업식에서는 약 40명의 학생들이 행사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자유 팔레스타인"을 소리 높여 외치며 행사장을 빠져나간 이들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학사모에 그려 넣고, 망토처럼 걸치거나 흔드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쓰는 흑백 체크무늬의 카피어를 쓰기도 했다.

이들의 집단 퇴장은 유명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드가 명예 학위를 받을 때 이뤄졌다. 사인펠드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유대인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인사다.

사인펠드의 연설이 이어지자 자리를 박차고 나간 졸업생들은 행사장 밖에서 "(진실은) 밝혀라, (친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춰라,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전 구호를 외쳤다.

에머슨대에서는 졸업생 5명 중 1명꼴로 카피어를 쓰거나 친팔레스타인 시위용품을 준비했다. 이들은 무대에서 졸업가운을 벗으며 항의 의사를 드러내는 방식 등으로 개별 시위를 벌였다. 졸업가운 대신 가자 전쟁 관련 빨간 글씨가 적힌 하얀 옷을 입은 한 졸업생은 졸업장을 던져버리고선 붉게 칠한 손바닥을 들어 보였다. 생중계 방송 카메라 앞에 팔레스타인을 상징하는 수박을 그린 손을 갑자기 내보이는 이도 있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모나대의 경우 시위대가 졸업식장에 야영 텐트를 설치하자 아예 행사장을 옮겼다.

앞서 11일에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구호를 외치며 졸업식을 방해하기도 했다.

버지니아커먼웰스대에서는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연설하는 동안 졸업생 60여명이 퇴장했고, 위스콘신대에서는 일부 졸업생이 총장의 연설 도중 등을 돌리는 방식으로 항의를 표현했다.

시위대의 캠퍼스 건물 점거에 경찰이 진압 작전으로 미 전역 57개 대학에서 시위대 2천900여명을 연행하는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대학가 반전 시위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대학의 졸업식은 대체적으로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AP통신은 "이번 주말 졸업식은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한편으로는 아예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캠퍼스 내에서 농성 중인 시위대와 대학 당국 간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 대학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캠퍼스 반전시위의 '진압'으로 불리는 뉴욕 컬럼비아대의 경우 일찌감치 대학 전체 졸업식을 취소하고 단과대 차원의 개별 행사로만 치르기로 했다.

서던캘리포니아대(USC)의 경우 공개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한 졸업생 대표에게 보안상의 문제로 졸업식 기조연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졸업식을 취소했다.

졸업이 1개월여 남은 시카고 드폴대에서도 대학 당국과 캠퍼스를 점거한 채 농성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 간의 협상이 교착에 빠져 졸업식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11일 호주 멜버른 포트필립만 상공에서 태양 폭풍으로 인해 발생한 오로라 오스트랄리스를 현지인들이 쳐다보고 있다. 활동 극대기에 들어선 태양 표면에서 최근 잇따라 강력한 태양 폭발이 일어나면서 평소 오로라를 볼 수 없는 지역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양 폭풍'의 선물... 지구촌 오로라 축제

독일·중국·뉴질랜드 등서 관찰... 대규모 정전 등 피해는 없어

약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일면서 지구 곳곳에서 형형색색의 오로라가 관측됐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독일·스위스·중국·영국·스페인·뉴질랜드 등 전 세계에 보라색, 녹색, 노란색, 분홍색 등을 띤 오로라가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남부 플로리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캔자스·네브래스카·아이오와·미시간·미네소타 등 전역에서 오로라가 관측됐다.

다만 당초 우려됐던 대규모 정전 등 심각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전력망과 통신 등에 작은 혼란만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AP는 전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이날까지 지자기(Geomagnetic) 폭풍이 계속됐으며 고주파 통신 및 GPS 시스템 기능 저하와 전력망 불안정과 관련한 예비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는 이날 오전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성능이 저하돼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위성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견뎌내고 있다"고 썼다.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금까지 태양 폭풍에 따른 심각한 피해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도 폭풍이 전기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NOAA의 우주기상예측센터(SWPC)는 10일 극한(extreme) 수준인 G5 등급의 지자기 폭풍이 지구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G5는 다섯 단계로 분류되는 지자기 폭풍 등급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G5 등급의 지자기 폭풍

이 지구를 강타한 것은 200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2003년 당시에는 지자기 폭풍으로 스웨덴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변압기가 파손된 바 있다.

NOAA는 적어도 12일까지 태양 폭풍의 강력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자기 폭풍은 태양 상층부 대기인 코로나에서 플라즈마와 자기장이 폭발해 지구로 향하면서 일어난다.

이 폭발은 흑점의 자기장들이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 흑점의 수는 약 11.2년을 주기로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이 주기마다 평균 100회 정도의 심각한 지자기 폭풍이 발생한다.

역사상 최대 지자기 폭풍은 1859년 9월의 '캐링턴 사건'(Carrington Event)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북미와 유럽 등의 전신망이 두절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테슬라 넘은 1천만원짜리 중국산 전기차

2008년 출시 '비야디' 돌풍...누적 판매량 600만대 넘어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각광받으며 몰고 왔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비야디는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237만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에서 팔린 같은 승용 전기차의 41%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비야디는 또 지난 2008년 전기차 생산에 돌입한 이후 업계 최초로 누적 판매량 6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타공인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도 해내지 못한 실적이다.

비야디는 올해 초 미화 1만달러(한화로는 약 1300만원)에 불과한 소형 시걸(Seagull)을 내놓으면서 벌써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에서 시걸의 성능이 가격 대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최근 판매량은 손의 분기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경제전문매체인 CNBC는 지난 3월 22일(현지시간) 시걸에 대해 "예상외의 매출 호조와 비야디

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로 미국 디트로이트와 텍사스에서 독일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업계와 정치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각국 정부의 견제 속에서도 비야디가 결국 '저가 공세'를 통해 대부분의 해외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한 비야디는 태국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헝가리 등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며 해외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0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전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에 이익이지만, 관세가 전기차 대신 부품을 겨냥하면 한국이 손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캐나다 산불 '비상'...1만ha 태워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여의도 면적의 34배를 넘게 태우며 확산,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비상이 걸렸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서부에서 앞서 지난 10일 발생한 산불이 이날 1만ha(1ha=1만㎡) 면적으로 확산했다. 여의도 면적(2.9㎢)의 34배 규모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인근 산불이 4136ha를 태우는 등 피해 면적이 크게 늘었으며 노던 로키스와 포트 넬슨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다.

플 프레이저 노던 로키스 시장은 "강풍으로 나무가 송전선 위로 쓰러지면서 산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노던 로키스로부터 7km 떨어진 원주민 거주 지역에도 대피령이 내려졌다.

브리티시컬럼비아와 맞닿아있는 앨버타주에서도 포트 맥머리 인근 등에서 43건의 산불이 발생해 대피령이 발령됐다. 이 지역에서 산불 면적은 5500ha까지 넓어졌다. 포트 맥머리는 삼림 지대에 있으며 지난 2016년에도 산불로 인해 건물

2500채가 파괴되고 9만명이 대피한 적이 있다.

앨버타주 내에서 포트 맥머리 외에도 사프레 크릭, 그레고아이어 레이크 등 다른 지역에도 대피령이 발령됐다.

앨버타주 당국은 소방대원 6명, 헬리콥터 13대와 화재 진압용 항공기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은 산불이 진압됐지만, 기온이 높아지면서 다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작년에도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 지난해 산불로 1500만ha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타고 소방관 8명이 사망했으며 주민 23만명이 대피했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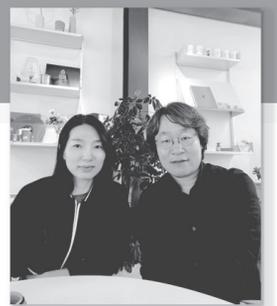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